

##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선회위원회>

### (1부) 정책 발표

“의사과학자 1천 명 양성... 바이오의료 혁신”

### (2부) ‘융합 교육 시스템’ 간담회

“일런 머스크 뉴럴링크에 도전한다”

- 의과학자는 왜 필요한가

- 의학·공학·과학 칸막이 허물고 융합교육 실시

\* 유튜브 박영선 TV, 오마이 TV 생중계/ 7일 오후 2시

○ (1부) 박영선 위원장 정책 발표 (“디지털은 연결이다!”) :

“의사과학자 1천 명 양성해 바이오 의료 혁신... 향후 30년 신성장동력 창출”

○ (2부) 융합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융합 교육 시스템’ 구축 간담회

- 박영선 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안종현 연세대 교수

정책 제안 참여 “의학·공학·과학 간의 칸막이 허물고 융합 교육 실시해야”

- 이광형 총장 정책 제안,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융합과학자이자 의사이며 창업가 역할 하는 인재 양성”

- 김무환 총장 정책 제안, “공학 기반의 의학교육은 디지털 대선회시대 필연적... 시대 요구하는 혁신 이끌 것”

- 안종현 교수 정책 제안과 시연, “일런 머스크 뉴럴링크에 도전... 의·공학 융합으로 미래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선회위원회(위원장 : 박영선)는 오는 7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디지털은 연결이

다!’ 「의사과학자 1 천명 양성」 정책을 발표하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텔리민주 스튜디오에서 ‘융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박영선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21세기 생명과학의 시대를 맞이해 의생명과학과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연계한 의사과학자 양성이 향후 30년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의사과학자 1천 명을 양성해 바이오의료를 혁신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 임상 의사를 과학자로 양성하는 의과학대학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 강화, ▲ 의·과학 융합 연구자와 창업가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매년 의사 50명 이상 선발, 의학석사 4년+공학박사 4년 교육 등 8년간 국비 전액 지원),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군의관, 공보의로 구분되는 의사의 병역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발표 이후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박영선 TV와 오마이 TV로 생중계되는 별도의 간담회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이광형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안종현 교수는 융합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융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융합 바이오는 차세대 반도체, 양자컴퓨터와 함께 박영선 위원장이 차기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3대 국가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대전환이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융합 바이오 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학·공학·과학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융합 바이오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현 교수는 ‘일런 머스크 뉴럴링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간 뇌파 측정을 통한 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보여준 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많이 뒤떨어진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이며, 이에 따라 의학·공학의 융합을 통해 미래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이광형 총장은 “매년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졸업생의 1% 미만이 연구분야로 진출해 연구인력이 부족한 등 국가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 라고 말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융합과학자이자 의사이며 창업가의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예정” 이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환 총장은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지방 소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측의학, 3D 프린팅 인공장기 등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며 “포스텍은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등 세계적 인프라와 더불어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교육을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이끌 것” 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튜브 채널 ‘박영선 TV’ 와 ‘오마이 TV’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끝)